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왜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루스벨트나 영국의 처칠처럼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지도자로 국민들로부터 영웅히 추앙받는 대통령은 없는 걸까.

우린 좋은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가

역대 정권, 부끄러운 뒷모습

MB만 보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상왕' 이삼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측근 대다수가 사법처리됐다.

이런 심정을 헤아렸을까. 얼마전 MB는 취임후 6번째 사과를 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대 대통령 이승만은 신생국 전통 수립이라는 역사적식보다 권력만 추구하다 독재자로 낙인찍혀 망명지 하와이에서 운명해야 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다.

잠룡들, 반면교사 삼을 덕목

대선후보들은 우선 가족·측근 비리 차단 의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선언과 함께 책임기간중 이를 지켜보도록 차기 정권에 좋은 선례로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We have a leader(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다).” 지금도 미국인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루스벨트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국가재건을 이끌 때 위기극복의 역사에 동참했던 국민들의 외침이다.

은평칼럼



옥영석

올 한해 가장 매스컴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싶다. 경제와 민주화가 합해진 단어이니 어감도 좋고 듣기에도 그럴싸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는 이는 선택 찾기 어렵다.

경제민주화, 협동조합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와 공정한 기회 부여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는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성장을 저해할 공산이 크고, 후자는 정책효과가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므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큰 것이다.

있는 이유는 기업과는 다른 목적과 소유구조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의 극대화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고



이학영

최근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해 원인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는 예년보다 훨씬 개선된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영산강 녹조현상, 공존의 길을 찾자

blooms)이다. 녹조현상은 일사량 증가, 높은 수온 및 영양물질(질소, 인) 농도 증가로 발생하며 주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녹조현상이 발생하면 남조류의 일부 종이 방출하는 독성물질이 발생한다.

더욱이 최근에 호남지역의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현상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2011년 기후변화보고서(기상청)에 따르면 호남지역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2.1도가 상승했다.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소액 결제 피해 '항당'

네살배기 어린 아기가 13만 원을 소액결제 했다던 민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소액결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 터져 한번 잘못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그저 무료게임을 만지작거리며 노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13만 원을 내라는 문자가 날아온 것이다. 이는 결제할 때 본인 확인도, 암호 입력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항당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항의하려고 전화를 하면 결제되는 책임은 명이자 본인에게만 있는 거라며 핸드폰 관리를 잘못해 놓고 따지던 어떻게 하냐고 되레 큰소리쳤다.

게 해놓는다. 은행 통장에서는 스마트폰 요금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등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시설

잇단 화력발전 추진 신중 접근 필요하다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남에 화력발전소가 5곳이나 추진돼 지역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오염물질 종합선물세트'로 여겨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민간기업들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원으로 판단, 잇단 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높은 셈이다. 전남에서는 MPC 추진 해남 화력발전소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민들의 갈등 속에 의회 반대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기업이 새로 신청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제2, 제3의 지역 광장음악회 키워야

지난 주말 옛 한국은행 자리인 광주 금남공원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다. 다음달로 50회째를 맞는 광장음악회다. 비록 화려한 공연장의 조명과 음향과는 동떨어진 조촐한 무대였지만 이날 관객들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시일만으로 꾸렸다. 그렇다 보니 할당에 한한 무대를 이어가는 것도 벅하다고 한다. 광장음악회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매주 한번씩 관객들과의 만남이 필요하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 때문에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無等鼓

진시황이 숨을 거둔 뒤 진 이세가 왕위에 오르자 환관 조고는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다. 급기야 모반을 획책하던 조고는 군신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다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한다. 진이세는 훗날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조고의 농간에 빠져 목숨을 구걸하다 자결했다. 사기(史記)에서 전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말이다. 뒷사람을 농락하고 함부른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때, 비록 환관 조고의 죄가 중하지만 농락당한 황제나 권세에 굴복한 대신들도 죄를 벗어나기 어렵다.

신(神)의 경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회사를 48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최근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내에서 '신의 경지'라고 불려오던 인물이다.

망을 피하지 못했다. 몇몇은 사슴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말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대신들에 대해 어떤 명분이든 붙여 모두 죽여 없앴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세인 金汝松.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고문의: 062-227-9600.